

유아-부모 애착과 애착 일치 여부가 또래지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Parent Attachment and Its
Concordance with Children's Peer Status*

박희경(Hee Kyung Park)¹⁾

정계숙(Kai Sook Chung)²⁾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parent attachment and its concordance with children's peer status. The subjects were 110 5-6 year old kindergarteners (48 boys & 62 girls) and they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by Bretherton & Cassidy (1990) and the peer rating scale by Asher, Singleton, Tinsley & Hymel (1979).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secure mother-child and father-child attachment groups had higher peer status than the insecure attachment groups. The insecure-avoidant groups had the lowest peer status. Young children who were securely attached to both parents and at least one parent had higher peer status than who were found to be insecurely attached to both parents. The implications for parent education for enhancing peer relation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모-유아 애착(mother-child attachment), 부-유아 애착(father-child attachment), 또래지위(peer status), 보상적 효과(buffering effects).

I. 서 론

유아는 태어나서 양육자와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의

관계를 경험하며 성장한다. 최근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조기교육 열풍, 핵가족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유아는 어린시기부터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유아는

* 이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¹⁾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영유아보육연구소 어린이상담실 상담원

²⁾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ai Sook Ch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kschung@pusan.ac.kr

보다 일찍부터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래의 영향도 더욱 많이 받게 되면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아는 또래관계를 통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Ladd, 2005; Ladd & Coleman, 1993) 자신을 인식하고(Harter, 1996)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송영혜, 2007) 하면서 사회적으로 보다 유능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의 또래관계는 유아기 이후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후 학업의 실패, 중퇴, 비행, 정신 병리적 문제 등 부적응 문제가 나타난다(신현숙, 1999; Lansford, Putallaz, Grimes, Schiro-Osman, Kupersmidt, & Coie, 2006). 이처럼 유아가 경험하는 한 사회적 관계로서 또래관계는 적응의 주요 지표가 되며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래관계의 정서적 측면인 또래수용은 유아가 또래 집단 내에서의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수용정도에 따라 또래 집단 내에서의 또래지위가 형성된다(Ladd & Coleman, 1993). 이는 유아의 리더쉽(이명숙, 2006), 유치원 적응(김귀자, 2004), 사회적 행동(민신일, 2003) 등과 같은 사회적 능력과도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한번 형성된 또래지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유아기의 또래지위는 학령기까지도 유지되고 지속되므로(이은정, 2003; Cillessen & Bukowski, 2000) 또래지위는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또래지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애착을 들 수 있다(Grimes, Klein, & Putallaz, 2004; Ladd, 2005). 애착이란 양육자와 형성하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 또는 인간 사이의 지속적인 심리적 연계로(Bowlby, 1982) 애착과 또래지위 간의 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 가

정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통해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부모를 안전기지로 이용함으로써 주변을 탐색하여 새로운 관계 즉, 또래관계 형성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성과 자율성을 갖게 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유아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물리적 제어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애착 제어체계로 조직화되고, 이에 따라 애착행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거리와 접근 가능성의 한계 사이에서 애착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환경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Bowlby, 1988). 즉, 유아는 항상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애착대상에 대한 애착행동을 보이며 이를 통해 안정감을 느낀다. 또한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범위를 유지하려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탐색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범위는 처음에 시간과 공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확장된다(Bowlby, 1988). 따라서 탐색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또래에 관한 관심과 탐색을 통해 적절하게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유아는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역사를 기초로 내적작동모델을 얻게 된다(Bowlby, 1982). 유능하고 반응적인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내에서 유아는 긍정적인 사회적 기대와 인간관계의 호혜성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킨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반대로 불안정하고 무반응의 애착관계를 경험한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이와 비슷한 반응을 기대하고 신뢰를 갖지 못한다(Cicchetti, Lynch, Shonk, & Manly, 1992). 그리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작동모델의 수정이 새로운 정보와 상황에 대한 방어적인 배척을 통해 차단되고 이러한 과정이 습관화되고 일반화 된다. 따라서 내적작동모델이 이끄는 상호작

용의 방식들은 이후 또래 관계를 맺을 때조차도 교정되지 않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또래지위(양외점, 1993)와 또래 유능성(원혜경, 2007)이 높았으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낮은 공격성을 보이고 불안과 두려움을 적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이숙희 · 이숙령, 1996).

한편, 이러한 유아의 또래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로 유아-어머니 애착이 다루어져 왔지만, Lamb(1975)에 의해 아동발달에 있어서 잊혀진 공헌자로 묘사된 바 있는 아버지는 오늘날 어머니의 사회진출의 보편화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그 역할이 증대되어 애착대상으로서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아버지와의 안정애착은 어머니-영아 간 불안정 애착의 부정적인 영향에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주장(Biller, 1993; Main & Weston, 1981)은 더 많은 유아-아버지 간 애착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가 형성하는 하나의 애착관계는 또 다른 애착관계로써 대체될 수 없다. 즉, 유아는 다양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은 서로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는 별개의 관계로 형성된다(Barnett & Vondra, 1999)는 관점에 기초하여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가 고취되었다(Bretherton, Lambert, & Golby, 2005).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의 역사에 기초하기 때문에(Grossman, Grossman, Kindler, & Zimmermann, 2008)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의 질에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선행된 11개의 애착 연구를 메타분석한 Fox, Kimmerly와 Schafer(199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

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일치 정도는 미미하며 ($K=.12$), 유아의 40%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 유형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이영환, 2002)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유아의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발달적 요인은 유아와 부모 간의 애착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유아의 수줍음과 불안(Asendorpf, 1993)은 유아-아버지 간 애착이 유아-어머니 애착보다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기긍정성(송영혜, 2007)의 특성은 유아-어머니 애착과 더 관련성이 있었다. Lidsey, Caldera와 Tankersley(2009)에 의하면 유아-어머니 애착은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유아-아버지 간 애착은 부정적인 또래놀이 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부모 각자와 형성한 유아의 애착관계는 또래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각기 다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이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된다는 전제에 의하면 두 애착 유형에는 연합적 영향력(effect of joint)과 보상적 영향력(buffering effect)이 내재되어 있다(Easterbrooks & Goldberg, 1990). 연합적 영향력이란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이 안정 애착으로 일치하는 경우 한쪽 부모에게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 보다 발달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하며, 보상적 영향이란 한 쪽 부모에게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부모 모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보다 발달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 간 애착유형의 일치 여부에 따른 연합적 영향과 보상적 영향은 유아의 또래유능성(Verschueren & Marcoen, 1999), 상호작용 시 갈등 해결 및 사교성(Main & Weston,

1981)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데, 주로 학령기 아동과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또래지위(김수경·이재신, 2007)나 사회적 유능감(이하경·이경숙·박진아, 2007), 우정의 질(정혜숙, 2005)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와의 애착을 동시에 고려하여 또래지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손은영, 2003)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지위는 유아기에 경험한 또래지위의 영향을 받으며(Cillessen & Bukowski, 2000) 또래지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유아기 보다 더 다양하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지위와의 연관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나레이티브 측정으로 유아의 애착대상에 대한 표상과 내적작동모델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는 이야기에 나타난 그림, 사진, 인형 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유아의 현재 표상을 이끌어 내는 이야기 접근 방법으로, 유아들은 자신의 세계를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의 이야기 속에 애착대상과의 일상생활 경험으로부터 구성된 사건 도식을 바탕으로 애착관계에 대한 표상이 반투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다(박경자·권연희, 2005). 또한 직접적인 보고는 연구자의 의도와 목표에 부합하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의 애착검사방법은 놀이와 대화를 통해 간접적인 애착 이야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통제할 수 있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이러한 방식의 애착검사방법을 대표하는 도구가 Bretherton 등(1990)의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

ASCT)이다.

유아의 또래지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또래 지명법 또는 또래 평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연구들(Hymel, 1983; Alain & Begin, 1987; Poteat, Ironsmith, & Bullock, 1986)에서 두 가지 측정방법이 연구자들에 따라 사용되어 왔는데, 또래 평정법은 모든 집단의 구성원 전체에서 개별 유아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하고, 또래 지명법은 선호되는 또는 선호되지 않는 놀이 상대자로서 특정 유아를 찾아내기 위해 유용하다(Ladd, 2005). 따라서 또래지위, 즉 또래집단 내에서 유아가 수용되고 인기 있는 정도를 알아보는 데는 또래 평정법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유아의 적응과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또래관계를 예측케 하는 또래지위에 유아가 형성한 양쪽 부모와의 애착과 애착 일치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애착 유형 일치 여부에 따라 또래지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부모 애착의 또래지위에 대한 영향과 유아-부모 애착의 연합적, 보상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유아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어머니 애착유형에 따라 또래 지위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아버지 애착유형에 따라 또래 지위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 간 애착유형 일치 여부에 따라 또래지위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ASCT)를 실시할 수 있는 만 3-5세 중 자신의 애착 이야기를 언어로 유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만 5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실시를 허락한 P시의 병설유치원 4곳의 만 5세 학급 남아 48명, 여아 62명 총 110명의 유아로 평균 월령은 약 75개월이었다. 그러나 유아-어머니 애착을 조사하는 시기에 5명의 유아가 결석을 하여 어머니, 아버지와의 애착을 모두 조사한 연구대상은 총 105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어머니(아버지) 애착 유형

본 연구는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Bretherton 등(1990)이 개발한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를 이진숙(2001)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발적인 이야기를 통해 유아의 내적 표상에 접근하는 방법

(이영환 · 이진숙 2003)으로 5개의 애착관련 주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야기 주제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애착관련 갈등이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단, ‘이야기 4. 엄마(아빠)가 여행을 가셨어요’의 경우 한국 문화에서는 대부분 할머니가 안전기반을 형성해 줌으로서 유아의 분리불안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이진숙, 2001) 이 장면에서 할머니 인형을 가족이 아닌 잘 모르는 동네 할머니로 대체하였다.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의 내용과 주제는 간략하게 <표 1>에 기술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 인형과 아버지 인형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2차례의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하였다. 표준화된 원안에 따라 이야기를 제시한 후 유아에게 다음에 예상되는 이야기에 대해 물어본 후 유아가 인형과 소품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모든 면접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한 후 연구자의 질문과 질문에 따른 유아의 언어적 반응과 행동적, 정서적 반응과 같은 비언어적 반응, 인형들의 움직임과 상대적 위치를 자세히 전사하였다.

이 자료를 가지고 김미정(2006)의 연구에 근

<표 1>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 내용과 애착관련 주제

	내용	주제
1. 주스를 엮질렀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유아가 우연히 주스를 엮지른다.	유아와의 관계에서 권위 있는 대상
2. 무릎을 다쳤어요.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유아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 피가 나고 운다.	애착과 보호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고통
3. 내 방에 괴물이 있어요.	유아가 잠을 자려고 하다가 방에 괴물이 있다고 소리를 지른다.	애착과 보호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고통
4. 엄마(아빠)가 여행을 가셨어요.	엄마(아빠)가 멀리 여행을 떠나고 돌봐 주는 할머니와 집에 남아 있다.	격리불안과 대처능력
5. 엄마(아빠)가 돌아오셨어요.	이튿날 아침 엄마(아빠)가 집에 돌아온다.	반감과 회피 저항 비조직 재결합 행동

거하여 Golby, Bretherton, Winn와 Page(1995)의 코딩지침 및 Goodman, Andrew와 Jones(1992)에 의해 수정된 Bretherton 등(1990)의 지침에 따라 2단계의 과정을 거쳐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각 이야기에 대해 Golby 등(1995)의 코딩지침에 제시된 내용과 구조(내용코드, 해결코드, 과정코드, 이야기의 일관성)에 근거하여 평정한 후 Bretherton 등(1990)의 분류준거에 따라 안정, 불안정-회피, 불안정-비조직으로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불안정-회피 유형인 유아는 모자 분리 상황에서 방어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며, 불안정-비조직 유형은 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되었다. 애착유형 분류는 연구자와 임상장면에서 아동용 애착검사 실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 1인이 함께 하였다. 무작위로 30사례를 선정하여 일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일치도는 .82였다. 애착유형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전사자료 분석과 토의를 통해 합의한 후 애착유형을 일치시켰다.

2) 또래지위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Agard와 Harrison(1978)이 제작한 'How I Feel Toward Others(HIFTO)'를 Asher, Singleton, Tinsly와 Hymel(1979)이 취학 전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또래 평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시방법은 우선 각 학급의 유아를 한 명씩 조용한 공간으로 데리고 와서 학급 전체 유아들의 사진을 보여준 다음 좋아하는 친구의 사진은 웃는 얼굴이 그려진 상자,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의 사진은 무표정한 얼굴이 그려진 상자, 그리고 싫어하는 친구의 사진은 찡그린 얼굴이 그려진 상자에 넣도록 한다. 또래를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좋아함-3점, 보통-2점, 싫어함-1점으로 채점하여 학급 내에서의 각 유아의 또래지위를 측정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애착검사 소요시간과 실시과정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만 5세 남녀 유아 4명(남아 2명, 여아 2명)에게 연구자가 2009년 1월 5일~7일까지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하였다. 검사시간은 5분에서 8분정도 소요되었으며 개별검사 실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2) 본 조사

선정된 유치원의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용 테이블과 탁자에서 연구자와 유아가 마주 앉아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하였으며, 또래지위 조사는 또 다른 조용한 공간에서 보조연구자가 실시하였다. 1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유치원을 순서대로 돌아가며 실시하였는데, 선행연구(Verschuere & Marcoen, 1999)에서 유아-어머니 애착 측정과 유아-아버지 애착 측정을 2-3일 간격으로 실시한 결과 유아가 검사 내용을 기억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주일의 기간을 두고 두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아버지 애착을 유아-어머니 애착 보다 먼저 측정하였다. 또래지위측정은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유아-어머니 애착 측정과 동시에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각 집단의 빈도와 백분율을 기초자료로 구하였다. 또한 애착 유형에 따른 또래지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한 후 일원변량분석(ANOVA)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유아-어머니 애착유형별 분포와 또래지위 점수의 차이 (N=105)

애착유형	유아 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안정 애착	74 (70.48)	2.17	0.25	10.386***	a>b
불안정-회피	22 (20.95)	1.90	0.26		
불안정-비조직	9 (8.57)	2.08	0.25		
합계	105 (100)	2.11	0.27		

*** $p<.001$ 사후검증 : *** $p<.001$, a : 안정애착, b : 불안정-회피애착

III 연구결과

또래지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유아-어머니 애착에 따른 또래지위

유아가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 집단별 또래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유아-어머니 애착유형별 분포는 안정애착이 가장 많았고 불안정-회피애착, 불안정-비조직 애착 순이었다. 또래지위 평균점은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가장 높았으며 불안정-비조직 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순이었다.

유아-어머니 애착유형에 따른 또래지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와 같이 또래지위에 있어서 애착유형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10.3869, p<.001$)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불안정-회피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2. 유아-아버지 애착에 따른 또래지위

유아가 아버지와 형성한 애착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 집단별 또래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유아-아버지 애착유형별 분포는 안정애착이 가장 많았고 불안정-회피애착, 불안정-비조직 애착 순이었다. 또래지위 평균점은 안정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가장 높았으며 불안정-비조직 애착, 불안정-회피 애착 순이었다.

유아-아버지 애착유형에 따른 또래지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와 같이 또래지위에 있어서 애착유형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4.174, p<.05$)가 있었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아버지 애착에 따른 또래지위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

<표 3> 유아-아버지 애착유형별 분포와 또래지위 점수의 차이 (N=110)

애착유형	유아 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안정 애착	67 (60.91)	2.16	0.24	4.174*	a>b
불안정-회피	38 (34.55)	2.00	0.31		
불안정-비조직	5 (4.54)	2.03	0.33		
합계	110 (100)	2.10	0.28		

* $p<.05$ 사후검증 : * $p<0.5$, a : 안정애착, b : 불안정-회피애착

<표 4> 애착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분포와 또래지위 점수의 차이

(N=105)

	유아 수 (%)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안정 애착 일치	51 (48.57)	2.20	0.24	10.830***	a, b>c
불일치	37 (35.24)	2.08	0.23		
불안정 애착 일치	17 (16.19)	1.88	0.31		
합계	105 (100)	2.11	0.27		

*** $p < .001$ 사후검증 : * $p < .05$, a : 안정애착 일치, b : 불일치, c : 불안정애착 일치

아가 불안정-회피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부모 애착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또래지위

유아가 부모와 형성한 애착유형의 일치여부를 안정애착 일치, 애착유형 불일치, 불안정 애착 일치 등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애착유형 불일치의 경우 어머니에게만 안정애착인 경우(23명)와 아버지에게만 안정애착인 경우(14명)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집단별 또래지위 평균이 2.10과 2.06로 t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한 집단으로 묶었다. 집단별 빈도와 백분율 및 집단별 또래지위 평균점을 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집단별 분포는 안정 애착 일치가 가장 많았고 불일치, 불안정 일치 순이었다. 또래지위 점수는 유아-어머니와 유아-아버지 애착유형이 불일치하는 유아가 안정애착 일치 유아보다 낮았고 불안정 애착 일치 유아보다는 높았다.

집단 간 또래지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와 같이 또래지위 점수는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10.830$, $p < .001$)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유아의 또래지위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양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

한 유아보다 더 높으며, 또한 양부모 어느 한쪽과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양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보다 또래지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 애착이 또래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가 형성한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에 따라 또래지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또래에게 가장 잘 수용되었고 불안정-회피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또래에게 가장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보다 또래지위가 높다는 양외점(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유아가 안정 애착을 형성하면 또래관계를 맺음에 있어 안정성과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또래와 편안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또래지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Berlin, Cassidy, & Appleyard, 2008; Lyons-Ruth & Jacobvitz, 2008; Main, 1990)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교실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래관계에서 리더가 되지 못하는 공통된 특성을 보여 또래지위가 낮게 나타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불안정 애착 유형 내에서도 유아가 불안정-회피 애착을 형성하였는지 불안정-비조직 애착을 형성했는지에 따라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특성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Berlin et al., 2008; Lyons-Ruth & Jacobvitz, 2008)가 있다. 불안정-회피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애착관계를 최소화 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또래를 거부하고 멀리하려고 도구적 공격성을 많이 보임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의 경향이 낮고, 불안정-비조직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 자체가 빈곤하여 또래에게 자기 독단적이고 통제적이므로 사회적 주도성이 낮다는 것이다(Berlin et al., 2008; Lyons-Ruth & Jacobvitz, 2008). 이러한 사회적 행동의 특징은 모두 본 연구에서처럼 중국에는 유아의 낮은 또래지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불안정 애착유형의 각기 다른 행동 특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이들의 지도 시에 보다 대상 맞춤형(child-tailored)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Schneider, Atkinson과 Tardif(2001)는 유아의 어머니와의 애착은 대집단에서의 또래지위보다는 더 친밀한 소집단 또는 두 사람 간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능력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유아-어머니 애착과 또래지위와 우정 간의 관련성을 친밀한 소집단 또는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대집단과 친밀한 소집단 또는 두 사람 간 관계에 대한 모자애착의 영향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와의 애착유형에 따른 또래지위를 보면 안정적으로 아버지와 애착을 형성한 유

아가 또래에게 가장 잘 수용되었고 불안정-회피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또래에게 가장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인기아와 거부아 간에 유아기의 아버지와의 애착 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Verschueren과 Marcoen(2003)의 연구는 또래지위가 유아-아버지 애착의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포함시켜 애착검사를 실시한 연구(이진숙, 2001; 손성민, 2007; Rydell, Bohlin, & Thorell, 2005)에서는 대체로 유아-아버지 애착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Verschueren과 Marcoen(2003)의 경우처럼 유아의 또래 수용에 유아-아버지 애착이 직접적인 영향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 동안 아버지의 아동발달에 대한 영향과 역할은 여러 영역(이영환·백지은, 1998; 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Meins, 1997)에서 연구되고 주장되어 왔지만 유아의 또래지위에 대한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또래지위향상에 요구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바, 양육자로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유아-아버지 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나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지각된 또래지위에 관한 연구(Verschueren & Marcoen, 2002)에서 아버지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공격성은 나타내지 않지만 또래에게 거부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아버지와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아동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기-가치 인식을 갖게 하여 또래관계에서 공격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또래에게 거부된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와의 애착이 자기-가치 인식을 매개로 하여 지각된 또

래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Lindsey 등(2009)이 아버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할수록 유아는 또래놀이 시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 점과 연결될 수 있다. 유아-아버지 간 애착과 또래 상호작용 및 놀이행동에 대한 더 많은 연구는 아버지 대상의 부모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유아의 어머니, 아버지와 형성한 애착 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른 또래지위의 차이를 보면, 양부모와의 안정애착이 가장 바람직하며 한쪽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였다면 다른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였다면 안정애착의 보상작용으로 불안정 일치의 경우보다 또래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보상작용의 긍정적인 영향은 양부모와의 안정 애착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으나, 유아-부모 애착의 보상적 영향력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Bretherton(1991)의 평균화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한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였다면 다른 부모와의 안정애착으로 긍정적인 보상이 가능하지만 양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만큼 완전한 보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이영환(2002) 또한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의 보상적 영향력을 보고하였다. Biller(1993)와 Main과 Weston(1981)이 영아의 아버지와 안정 애착은 어머니와의 불안정 애착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한다고 한 주장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또래지위와 관련하여 부모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넷째, 유아가 어머니, 아버지와 형성한 애착 유형은 모두 안정 애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안정-회피 애착, 불안정-비조직 애착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어머니 애착유형의 분포는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이영환과 이진

숙(2003)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벨기에에서 조사된 Verschueren과 Marcoen(1999)의 연구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안정 애착은 더 적고 불안정-회피 애착과 불안정-비조직 애착은 훨씬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어머니 간 애착은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양육 실제의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모자애착에 관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비교 문화적 연구들(김숙령, 1995; Rothbaum, Pott, Azuma, Miyake, & Weisz, 2000)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유아-아버지 애착유형의 분포도 또한 Verschueren과 Marcoen(1999)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영환과 이진숙(2003)의 연구 역시 본 연구에 비해 아버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11%정도 많았으며, 불안정-회피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오히려 18% 적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결과는 유아의 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Parke(1986)는 부모가 동성의 자녀와 신체접촉을 빈번하게 하고 자극도 많이 제공하여 유아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함에 있어서 유아의 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안미정, 2002, 재인용). 본 연구에서 여아의 비율(56.4%)이 남아(43.6%)보다 높았던 점은 유아-아버지 애착에서 불안정-회피 애착 유아의 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유아-어머니 애착과 유아-아버지 애착은 독립적으로 형성되지만 상호 연관되어 유아의 또래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사례로 진행되었고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는 유아의 언어 및 인지 발달 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지위에 대한 양부모와의 애착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부모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얻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가 다르다는 점(강인설·정계숙, 2009)에서 또래지위의 측정방법을 달리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으며, 양부모와의 애착은 유아의 성에 따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Berlin et al., 2008; Parke, 1995) 주장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부모와의 애착의 보상적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애착의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설·정계숙(2009). 인기아와 비인기아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발달. **아동학회지**, 30(5), 1-16.
- 김귀자(2004). 유아의 또래지위와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2006).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한 모-유아 중심의 애착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령(1995). 유아의 애착상태와 유치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서적 문제행동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5(1), 21-38.
- 민신일(2003). 유아의 또래지위와 사회적 행동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영(2003).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민(2007). 농촌 유아의 애착표상과 자아지각 및 또래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혜(2007). **또래관계 : 진단과 치료**. 경기도 파주 : 집문당.
- 신현숙(1998). 부모와 또래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정서반응과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정(2002). 영아-아버지와 영아-어머니의 애착안정성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외점(1993). 유아의 애착유형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혜경(2007). 유아의 애착과 어머니 양육태도 및 또래유능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2006). 또래관계에서의 유아 리더십 양상과 성 및 인기도와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1), 85-106.
- 이숙희·이숙령(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이영환(2002).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한국영유아보육학**, 31, 77-90.
- 이영환·백지은(199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1), 1-28.
- 이영환·이진숙(2003).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3, 69-91.
- 이은정(2003). 부모와 또래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정서반응과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계숙·노진형(2004). 동화를 활용한 통합 활동 중심의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 언어발달지체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연구**, 12(1), 17-41.
- Ainsworth, M.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Alain, M., & Begin, G. (1987). Improving reliability of peer-nomination with young childre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4, 1263-1273.
- Asendorpf, J. B. (1993). Beyond temperament : A two-factorial coping model of the development

-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265-290). Hillsdale, NJ : Erlbaum.
- Barnett, B., & Vondra, J. I. (1999). Atypical patterns of early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urrent directions. In J. I. Vondra & D. Barnett (Eds.). *Atypical attach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mong children at developmental risk* (pp. 1-24).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4. Chicago,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lin, L. J., Cassidy, J., & Appleyard, K. (2008). The influence of early attachment on other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857-879). New York : Guilford Press.
- Biller, H. B. (1993). *Fathers and families : Paternal factors in child development*. Westport, CT : Auburn House.
- Bowlby, J. (1982). *Attachment*. Attachment and loss. Vol.1.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1). Pouring new wine into old bottles : The social self as internal working model. In M.R. Gunner & L.A. Sroufe (Eds.). *Self process and development* (pp.1-41).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23. Hillsdale, NJ : Erlbaum.
- Bretherton, I., Lambert, J. D., & Golby, B. (2005). Involved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as seen by themselves and their wives : accounts of attachment, socialization, and companionship.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3), 229-251.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s :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273-308). Chicago,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barera, N. J,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 127-136.
- Cicchetti, D., Lynch, M., Shonk, S., & Manly, J. T. (1992).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on peer relations in maltreated children. In R. D. Parke and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 (pp.345-384). Hillsdale, NJ : Erlbaum.
- Cillessen, A. H. N., & Bukowski, W. M. (2000). Recent advances in the measurement of acceptance and rejection in the peer system.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No.88.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 (1990). Security of toddler-parent attachment : Relation to children's sociopersonality functioning during kindergarte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221-244). Chicago, IL : University Chicago Press.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and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 (pp.77-106). Hillsdale, NJ : Erlbaum.
- Fox, N. A., Kimmerly, N. L., & Schafer, W. D. (1991). Attachment to mother/attachment to father :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2, 210-225.
- Grimes, C. L., Klein, T. P., & Putallaz, M. (2004).

- Parent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peers : Influences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 J. B. Kupersmidt, & K. A. Dodge (Eds.). *Children's peer relations : From development to intervention* (pp.141-158).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ossmann, K., Gossmann, K. E., Kindler, H., & Zimmermann, P. (2008). A wider view of attachment and exploration : The influence of mothers and fathers 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security from infancy to young adult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857-879). NY : Guilford Press.
- Harter, S. (1996). Developmental changes in self understanding across the five to seven year shift. In A. Sameroff & M. Hauth (Eds.), *Reason and responsibility : The passage through childhood* (pp.204-236). Chicago,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ymel, S. (1983). Preschool children's peer relations : Issues in sociometric assess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9, 237-260.
- Ladd, G. W. (2005).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ocial competence*. New York : Vail-Ballou Press.
- Ladd, G. W., & Coleman, C. C. (1993).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 Forms, features, and functions. In B. Spode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p.57-76). New York : Macmillan.
- Lamb, M. E. (1975). Fathers :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Lansford, J. E., Putallaz, M., Grimes, C. L., Schiro-Osman, K. A., Kupersmidt, J. B., & Coie, J. D. (2006). Perceptions of friendship quality and observed behaviors with friends : How do socio-metrically rejected, average, and popular girls differ?. *Merrill-Palmer Quarterly*, 52, 694-720.
- Lindsey, E. W., Caldera, Y. M., & Tankersley, L. (2009). Marital conflict and the quality of young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 of parent-child emotional reciprocity and attachment secur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2), 130-145.
- Lyons-Ruth, K., & Jacobowitz, D. (2008). Attachment disorganization : Genetic factors, parenting contexts, and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from infancy to adult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666-697). New York : Guilford Press.
- Meins, E. (1997). *Security of attachment and the social development of cognition*. East Sussex : Psychology Press.
- Parke, R. D. (1995). Father and families.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Status and social conditions of parenting*. Hillsdale, NJ : Erlbaum.
- Poteat, G. M., Ironsmith, M., & Bullock, J. (1986). The classification of preschool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 349-360.
- Rothbaum, F., Pott, M., Azuma, H., Miyake, K., & Weisz, J. (2000).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Paths of symbiotic harmony and generative tension. *Child Development*, 71, 1121-1142.
- Schneider, B. H., Atkinson, L. A., & Tardif, C. (2001). Child-parent attachment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 A quantitative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86-100.
- Verschueren,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ners :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 183-201.
- Verschueren, K., & Marcoen, A. (2002). Perceptions of

Self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in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rejected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 501-522.

Verschueren, K., & Marcoen, A. (2003). Kindergarteners'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o father and mother : Differential effects on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middle childhood. In K. Grossman & H. Kindler (Chairs), *Fathers in longitudinal studies of socio-emotional development : Steps towards a theory of the child-father relationship*.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FL.

2009년 12월 31일 투고, 2010년 3월 18일 수정
2010년 3월 26일 채택